

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4월 17일(금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IMF·세계은행 총재, AIB 환영
- 2) 블룸버그 단말기, 전 세계적 마비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중국 개인 투자자 유럽·호주 등 거침없는 부동산 매입 추세
- 2) 중국, 파키스탄에 50조원 투자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애플, 중국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계획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IMF · 세계은행 총재, AIIB 환영

- 지난 16일 주요 언론사들은 IMF · 세계은행(WB) 춘계총회에 참석한 김용 WB 총재가 개발사업에서 다자주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지난 70년간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라 언급했다고 보도
- 또한, 중국이 다자주의 기구를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며 아시아지역에서의 인프라투자가 매우 필요,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와 긴밀한 협력을 바란다고 언급
- 반면, AIIB의 투자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, 투자 대상 지역이 어디일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임
- 한편,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IMF는 AIIB와 분명히 협력할 것이며 지역적 기반의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제안에 긍정적 태도를 보임

2) 블룸버그 단말기, 전 세계적 마비

- 지난 17일, 블룸버그통신은 블룸버그 단말기가 전 세계 전역에서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으며, 원인 파악 중에 있지만 구체적 장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힘
- 일각에서는 이번 장애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 금융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
- 한편, 블룸버그통신이 운영하는 블룸버그 단말기는 금융시장 종사자의 필수품으로 꼽히며 로이터 단말기 등과 세계 금융시장 정보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음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중국 개인 투자자 유럽·호주 등 거침없는 부동산 매입 추세

- 지난 17일 증권일보는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지난해 해외 부동산 투자금액이 165억달러로 전년대비 46% 증가했다고 보도
 - 또한, 전문가들은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대출 금리가 낮으며, 중국 본토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
- 세부적으로는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부동산 투자처는 유럽으로 지난해에는 55억을 투자했으며 이중 런던 부동산에는 40억 달러를 투자,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지난해 매입액만 30억으로 이중 시드니 부동산에 22억달러 투자, 미국(뉴욕·캘리포니아)과 캐나다(토론토·벤쿠버)에서는 약 25억 달러매입
- 한편,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인들이 해외 부동산을 실제 현지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값에 사들이고 있다며 법적인 리스크와 환율 위험도 있어서 여전히 쉽지 않은 투자라고 지적

2) 중국, 파키스탄에 50조원 투자

- 지난 16일, WSJ은 오는 20~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파키스탄 방문 기간에 중국이 파키스탄에 46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를 투자하는 일대일로(一帶一路·육상·해상 실크로드) 프로젝트 계획을 공식화할 것이라 보도
 - 이번 투자는 중국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단일 국가 투자액이며 중국 신장자치구 카스와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를 잇는 3000km 구간에 철도, 도로, 에너지 수송로 등을 건설, ‘경제 회랑’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

- 또한, WSJ은 이번 투자가 중국의 아시아 교역·교통 통로를 확장, ‘아시아 중시전략’ (Pivot to Asia)을 펴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평가
 - 이번 투자는 중국판 ‘마셜플랜’ 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실행의 시작점으로도 인식됨
- 한편, 중국의 파키스탄 투자는 인도를 견제하는 데에도 효과를 낼 전망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애플, 중국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계획

- 지난 17일 중국 신화통신은 애플이 중국 쓰촨 성 산간지역에 4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보도
 - 애플 환경담당 부회장 리사 잭슨은 8천만kWh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중국 내 모든 애플 사무소와 판매점이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
- 또한, 잭슨 부회장은 태양광 발전 설비 제작시 패널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
- 한편, 애플은 쓰촨성 티베트 족·장족 자치주 홍위안 현과 조계 현 두 곳에서 연간 6만 1천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것이며 미국에서도 현지 태양광 발전 사업에 거액을 투자할 계획